

보도시점

2024. 3. 6.(수) 09:30

배포

2024. 3. 6.(수) 09:30

농어촌공사 '수리·수문설계시스템' 민간 개방 확대

-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민간 주도의 혁신·기술력 향상 촉진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담은 수리·수문설계시스템(K-HAS)의 기능을 개선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수리·수문설계시스템(K-HAS)’*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공사가 100년 이상 축적한 기술을 전산화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를 위한 수문분석과 수리해석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홍수량 산정, 관개계획 수립을 위한 물 수지 분석, 침수분석 등이 가능하다.

* K-HAS(KRC Hydraulics & Hydrology Analysis System):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수문설계시스템

* 분야별 활용 정보

- 치수(호우 대비): 치수 계획 수립을 위한 홍수량 산정, 저수지 안정성 분석 등
- 이수(용수 확보): 관개계획 수립을 위한 유입량, 필요 수량 산정, 물 수지 분석 등
- 수리(침수 분석): 배수개선 사업지구 내 시설물 규모 검토 등

공사는 2016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민간에 무료로 제공해 민간의 기술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업, 학술 단체 등의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685건의 프로그램 무료 사용권(라이선스) 발급으로 민간의 성장을 지원하고 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앞장섰다.

올해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 가능최대 강우량(PMP)의 입력 기능을 수정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한 지도 배경 활용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상

청 관할 76개 관측소의 일별 기상자료, 강우 자료 최신화로 프로그램 사용의 정확성을 높였다.

시스템은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호 사장은 “극한호우나 메가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그동안 축적된 공사 기술력의 민간 공동 활용이 중요해졌다.”라며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으로 민·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학술연구 발전에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반계획처	책임자	부 장	이주형 (061-338-5711)
	기후정책추진단	담당자	대 리	이윤표 (061-338-5718)